

'3연속 워닝시리즈' KIA, 안방서 기세 잇는다



19~21일 LG·22~24일 SSG와 홈 6연전 격돌 주간 ERA 1위·타율 2위...박재현 등 타선 기대

3연속 워닝시리즈를 달성한 KIA타이거즈가 이번 주 안방에서 상승세를 이어간다.

KIA는 지난주 주중 두산베어스에 워닝시리즈를 따낸 뒤 주말 삼성라이온즈에게도 2승 1패를 거뒀다.

앞선 롯데전에 이은 3연속 워닝시리즈다. 그 결과 21승 1무 21패로 승률 5할을 회복, 리그 5위에 자리했다.

상위권과의 격차도 좁혔다. 4위 SSG랜더스와는 1.5게임차, 3위 삼성과는 3.5게임차다.

KIA는 이번 주 광주에서 리그 2위 LG트윈스와 SSG를 차례로 만난다.

순위 경쟁을 하는 팀과의 경기가 예정된 만큼, 좋은 결과를 만든다면 순위 상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기회다.

현재 타선의 분위기는 좋다.

지난주 경기 기간 팀 타율은 0.306으로 리그 2위, OPS(출루율+장타율)는 0.829로 3위에 자리했다.

특히 박재현의 활약이 돋보였다.

지난주 6경기에서 28타수 10안타 2홈런 7타점 타율 0.327을 기록했다.

지난 15일 삼성전에서는 9회 역전 결승 투런포를 쏘아 올렸고, 16일에도 팀의 영패를 막는 투런 홈런을 터뜨렸다. 17일 경기에서는 6타수 5안타 2도루 2타점으로 팀의 16-7 대승을 이끌었다.

그는 타격뿐만 아니라 빠른 발을 활용해 상대 투수를 흔들며 팀의 리드오프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김호령도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지난주 6경기에서 21타수 8안타 4타점 타율 0.381을 기록하며 타선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김도영은 6경기에서 23타수 7안타 1홈런 3타점 타율 0.304를 기록했다.

17일 삼성전에서는 2회초 2사 2루에서 상대



김호령



김도영

148km 직구를 받아쳐 좌측 담장을 넘기는 투런포를 터트리며 홈런 13개로 리그 선두 자리를

지켰다. 시즌 초반 타격감이 좋지 않았던 나성범도 지

난주 5경기에서 17타수 5안타 1홈런 타율 0.294를 기록하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마운드의 안정감도 반갑다.

KIA는 지난주 팀 평균자책점 3.40으로 이 부문 리그 1위에 올랐다.

네일은 15일 삼성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5피안타 3탈삼진 1실점으로 호투하며 초반 부진을 딛고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

황동하의 상승세 역시 눈에 띈다.

황동하는 14일 두산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7피안타 1사구 3탈삼진 3실점으로 호투했다. 지난 2일 KT전 7이닝 무실점, 8일 롯데전 6이닝 1실점 이어 3경기 연속 퀄리티스타트(QS·6이닝 3자책점 이하)를 작성하며 토종 선발진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KIA는 이번 흐름 속에서 주중 LG와 맞붙는다.

LG는 현재 25승 17패 승률 0.595로 리그 2위에 올라있다.

평균자책점은 1위(4.13), 팀 타율은 공동 3위(0.268)로 모두 KIA(평균자책점 4.49·타율 0.263)를 웃돌고 있다.

올 시즌 상대 전적 또한 1승 2패로 KIA에게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만 최근 10경기에서 4승 6패를 기록하며 다소 주춤 흐름을 보이고 있다.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만날 LG는 19일 투허스트를 선발로 내보낼 예정이다. 이에 KIA는 아담 윌러를 선발로 투입한다.

LG와의 일정을 마친 KIA는 주말 같은 장소에서 SSG와 3연전을 치른다. SSG는 KIA보다 한 계단 위에 있는 순위 경쟁팀이다.

KIA는 올 시즌 SSG전에서 2패를 기록 중이지만, 최근 SSG 마운드가 흔들리고 있는 만큼 홈 이점을 살린다면 반격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3연속 워닝시리즈로 5할 승률을 회복한 KIA가 홈 6연전에서도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역전 드라마' 방신실, 6승 달성 KLPGA 두산 매치플레이 제패

방신실이 극적인 역전 드라마를 펼치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 정상에 올랐다.

방신실은 17일 강원도 춘천 라데나 골프클럽 네이처·가든 코스(파 72)에서 열린 '제18회 두산 매치플레이'(총상금 10억원) 결승에서 최은우를 연장 끝에 꺾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지난 2023년 KLPGA 투어에 데뷔한 방신실은 첫해 2승을 거둔 데 이어 지난해에는 3승을 쓸어 담으며 공동 다승왕에 올랐다.

이번 우승으로 그는 지난해 9월 OK저축은행 오픈오픈 이후 약 8개월 만에 정상에 복귀하며 통산 6승째를 기록했다.

특히 KLPGA 투어를 대표하는 장타자로 꼽히는 방신실은 이번 우승으로 매치플레이 대회 첫 정상에 오르는 기쁨도 누렸다.

우승 상금 2억5000만원을 추가한 방신실은 시즌 상금 3억6311만원을 기록하며 상금 순위 3위로 올라섰다.

방신실의 우승 여정은 완벽에 가까웠다. 조별리그 4조에서 김지수와 문정민, 김민솔을 꺾고 3전 전승으로 16강에 진출했다.

결승전 초반 흐름은 방신실이 잡았다. 1번 홀(파 4)에서 버디를 낚아 기선을 제압했다. 그러나 최은우가 3번 홀(파 3) 버디로 맞불을 놓으며 승부는 팽팽하게 이어졌다.

방신실은 6번 홀(파 5) 버디로 다시 앞서갔지만, 9번 홀 보기로 균형을 허용했다. 이후 중반 들어 위기를 맞았다. 11번 홀(파 4)과 12번 홀(파 5)에서 연속 보기를 기록하며 두 홀 차로 끌려갔고, 14번 홀에서는 최은우가 버디를 잡아내며 격차가 3홀까지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 보였지만 방신실은 끝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았다. 15번 홀(파 4)에서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추격의 불씨를 살렸고, 17번 홀(파 4)에선 최은우의 3퍼트 보기가 나오면서 한 홀 차까지 따라붙었다. 승부는 마지막 18번 홀(파 5)까지 이어졌다. 방신실은 버디 퍼트를 놓쳤지만, 최은우 역시 우승을 확정할 수 있었던 파 퍼트를 넣지 못하면서 경기는 연장으로 향했다.

최은우는 파 퍼트에 실패했고, 결국 방신실이 극적인 역전의 주인공이 됐다.

방신실은 "매치플레이에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우승해서 정말 기쁘다"며 "목표였던 매치플레이 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1차 목표를 이뤘고, 남은 시즌에는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싶다. 지난해 다승을 했는데 올해는 지난해 3승을 넘어서 다승을 하는 커리어하이 시즌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방신실

'원클럽맨' 광주FC 이민기, K리그 200경기 출전

인천 원정경기서 선발 출전 구단 역대 '출장 2위' 기록 2016년 입단 후 꾸준히 활약

프로축구 광주FC의 '원클럽맨' 이민기가 K리그 통산 200경기 출전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이민기는 지난 16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인천유나이티드와의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며 K리그 통산 200경기 출장을 달성했다.

지난 2016년 광주에서 프로 무대에 데뷔한 이민기는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줄곧 광주 유니폼만 입고 뛰어들었다.

꾸준한 경기력과 헌신적인 플레이를 바탕으로 팀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았고, 어느덧 광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선수로 성장했다.

이민기는 안정적인 수비력과 왕성한 활동량을 앞세워 광주의 측면을 책임져 왔다.

특히 2022년 K리그2 우승과 함께 리그 최다 승점·최다승 기록 달성에 힘을 보탤 수 있었다. 2023년에는 광주의 K리그1 역대 최고 성적인 3위 달성에도 주축으로 활약했다.

해당 시즌 K리그1 베스트11 좌측 풀백 부문 후보에 오르며 경쟁력도 인정 받았다.

리더십도 빼놓을 수 없다. 이민기는 2024년 부주장을 맡아 선수단의 중심을 잡았고, 2025년에는 주장 완장을 차고 팀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광주는 시도민구단 최초로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8강 진출이라는 성과를 함께 일

궤했다.

현재 이민기는 광주 구단 역대 최다 출장 순위에서 안영규에 이어 2위에 올라 있다. K리그1 기준으로는 146경기 출전하며 구단 역대 최다 출장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이민기는 "프로 데뷔 이후 광주라는 한 팀에서 꾸준히 경기에 나설 수 있었던 것 자체가 큰 영광"이라며 "항상 응원해주는 팬분들과 함께해 준 감독님, 코칭스태프, 동료 선수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항상 책임감 있게 뛰며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체중 조정, 전국소년체전 광주 '첫 금'

구시은·박예성, 사전경기 더블스킬서 1위 합작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한 광주 선수단이 사전경기 조정에서 첫 금메달을 수확했다.

구시은·박예성(이상 광주체중 3년)은 지난 17일 부산 서낙동강 조정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15세이하부 더블스킬에서 3분20초92를 기록,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두 선수는 경기 내내 안정적인 호흡과 뛰어난 팀워크를 선보이며 경쟁팀들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꾸준히 맞붙은 호흡과 집중력이 빛난 경기였다.

이어 남자 15세이하부 싱글스킬에 출전한 정희성(광주체중 3년)은 3분43초46으로 은메달을 획득했고, 여자 15세이하부 더블스킬의 강지현(광주체중 3년)·오로라(광주체중 2년)는 동메달을 차지했다.

이로써 광주 선수단은 조정 사전경기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등 총 3개의 메달을 확보하며 전망을 밝혔다.

구시은·박예성은 "훈련했던 만큼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어 기쁘다"며 "함께 뛰출린 동료들과 지도자 선생님,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소감을 전했다.

광주 조정은 광주체중과 광주체고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선수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후 광주시체육회와 목성그룹 조정팀으로 이어지는 연계 육성 구조를 통해 지역 조정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차상률 광주조정협회장과 황용준 부회장, 신영금 전부사도 선수 육성과 종목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고 있다.

특히 목성그룹은 지역 우수 선수 유출을 막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체고 출신 국가대표 김지



'제5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조정 남자 15세이하부 더블스킬에서 광주 선수단 첫 금메달을 획득한 광주 조정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남 광주시체육회장, 구시은, 박예성, 사전경기-광주시체육회

선 등 선수 4명을 영입해 실업팀을 창단하며 지역 체육 발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현장을 직접 찾은 전남 광주시체육회장은 시상식에 참여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전 회장은 "그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이 금메달이라는 값진 결과로 이어져 매우 자랑스럽다. 선수와 지도자, 협회, 기업의 지원이 함께 어우러져 광주 조정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준 성과"라며 "유소년 체육 발전을 위해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선수단은 오는 22일부터 5일간 부산 일원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 본 대회에 육상 등 37개 종목 1090명(선수 662명·임원 428명)이 참가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침삿 한 방' 문도엽, 경북오픈 정상

문도엽이 마지막 홀에서 나온 환상적인 침삿으로 극적인 우승을 완성했다.

문도엽은 17일 경북 구미 골프존카운티 선산(파 71)에서 열린 2026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경북오픈(총상금 7억원) 최종 4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1개를 묶어 4언더파 67타를 기록

했다. 최종 합계 14언더파 270타를 적어낸 문도엽은 문동현(13언더파 271타)을 1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우승 상금은 1억4000만원이다. 이번 우승으로 KPGA 투어 통산 6승째를 달성한 문도엽은 시즌 첫 승과 함께 제네시스 대상 포인트 1위에도 올라섰다. 시즌 상금 순위 역시 1억9400만원으로 4위까지 끌어올렸다.

3라운드까지 단독 선두 박상현에 1타 뒤진 공동 2위였던 문도엽은 최종 라운드 초반부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선보였다.

전반에만 3타를 줄였고, 후반 13번 홀(파 3) 버디까지 더해 우승 가능성을 높였다.

연장전을 기대하며 경기를 지켜보던 문동현 역시 문도엽의 완벽한 침삿에 박수를 보내며 승부를 인정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문도엽